

광주 아파트 지하 기둥 균열...주민 긴급 대피

북구 평화맨션...하중 못견디던 기둥 2곳에 박리현상
‘쿵’ 소리 함께 건물 흔들려 주민 168명 학교 대피
보조 기둥 3~4개씩 설치...정밀 안전진단 나서

준공된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 지하 기둥 일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관계당국이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갔으나, 안전성 여부 판단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지어 진지 오래된 탓에 현재 설계도가 없어 정밀진단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오후 1시56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려 주민들이 긴급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와 관계당국은 아파트 건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60가주 주민 168명을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시켰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북구청과 업계 전문가 등이 긴급 안전진단을 한 결과,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된 12개의 콘크리트 기둥(높이 2.6m·폭 1.2m 두께 30cm) 가운데 건물 맨 가장자리 2곳에서 압축 파괴현상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상부 힘(하중)에 의해 기둥이 5cm가량 아래로 짓눌리면서 균열이 생기고 콘크리트가 잘게 부서져 떨어져 나가 철근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북구청은 우선 압축파괴 현상이 발생한 2개의 기둥 옆에 보조 기둥을 각각 3~4개씩 설치, 건물 하중을 분산시켜 붕괴 가능성을 없앤 뒤 정밀 안전진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건물을 떠받치는 12개 기둥 가운데 인접한 2개의 기둥에서 압축파괴

현상이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33년 전 건축 당시부터 2개의 기둥에 ▲철근 양이 적게 들어갔거나

▲콘크리트 강도가 일정치 않거나 ▲콘크리트 타설 당시 부실한 시공으로 기둥에 공간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부실 공사와 달리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지하에 있어 습도에 노출된 탓에 콘크리트가 부식돼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애초 시공 당시 철근을 부족하게 넣었거나 콘크리트 타설이 잘못돼 있던 것이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 긴급안전진단에 참여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시 거주하기 위해선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벽과 기둥이 지탱해야 할 건물의 총 하중을 계산한 뒤 지하 기둥 및 외벽을 보강하고 1~10층 외벽까지 모두 보강한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1981년 준공된 철골 콘크리트 건물로 10층 규모 2개 동으로 건립됐으며 문제가 발생한 곳은 2개 동 가운데 한 개 동의 지하 기둥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주민들 긴급 대피

2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 지하실에서 건물 하중을 받치고 있던 12개의 콘크리트 기둥 가운데 2개에서 균열(작은 사진)이 생겨 주민들이 통채선 밖으로 긴급 대피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6 몰림 04:03
 해질 19:42 몰짐 18:15

비 피해 조심하세요!

전동-번개 치고 많은 비 내리는 곳 있었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	25/29	보성	비	25/28
목포	비	25/29	순천	비	25/29
여수	비	25/28	영광	비	25/29
나주	비	25/29	진도	비	25/29
완도	비	25/28	전주	비	25/32
구례	비	25/30	군산	비	25/30
강진	비	25/28	남원	비	25/31
해남	비	25/29	흑산도	비	24/27
장성	비	24/2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남동~남	0.5~1.5	남동~남	1.0~3.0
남해 서부	남동~남	1.5~3.0	남동~남	2.0~6.0
남해 서부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남해 서부	남동~남	1.5~3.0	남동~남	2.0~4.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1:20	06:41	13:12	18:39
여수	08:08	02:12	20:41	14:08

◇주간 날씨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8/1(금)
☁	☁	☁	☁	☁	☁	☁
25/30	24/29	24/32	24/32	25/32	24/32	24/32

◇생활지수

식중독	60
운동	10
빨래	20

주말까지 장맛비...‘게릴라성 호우’ 주의해야

25일 광주·전남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주말인 26일까지 이어지는 장맛비는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리는 ‘게릴라성 호우’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 광주·전남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비가 내릴 것”이라고 24일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10~60mm.

기상청은 제 10호 태풍 ‘마트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돼 목포와 여수 등 남해안 지역과 지리산 부근에 돌풍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전남에 올 들어 처음으로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다. 24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26.2도를 비롯해 ▲목포 26.3도 ▲여수 25.5도 ▲완도 25.4도 ▲장흥 25.3도 ▲해남 26.4도를 기록,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법원 “동급생에 욕설 문자메시지 ‘학폭’ 해당”

동급생에게 욕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중학생 A양이 학교를 상대로 낸 봉사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3년 3월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학기 초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 중 두 명과 갈등을 빚었다.

자신의 시험 성적을 허락 없이 봤다는 이유로 B양을 따돌리고 그와 친하게 지내던 C양에게도 폭언을 했다. 두 사람에게

‘전파’ 등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 내 봉사 5일 및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양 측은 소송을 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B·C양에게 폭언한 사실을 맞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학교폭력법상 폭력으로 규정된 명예훼손·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여대생 성추행 전남도립대 교수 해임

전남도립대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희롱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이모 교수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이 대학 일부 학생들은 이 교수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맡은 모 학과 여학생에게 악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며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밤늦게 전화를 거는 등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교수에 대한 성희롱 등의 혐의를 조사해 도립대 상급기관인 전남도에 징계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통보했고 전남도도 해당 교수에 대해 중징계하도록 대학 측에 지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고소취하해” 피해자측 협박...광주 모신문사 직원 법정구속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조영호 판사는 24일 동급생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아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 학생 부모들을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지역 H신문사 A(5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A씨의 아들이 동급생을 추행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한 채 자식의 허물을 덮고 감추기에 급급했다”

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A씨의 그릇된 행동으로 자퇴, 복학 등으로 방황하다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피해 학생 가족 모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A씨는 반성하지도,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위장병, 반복할 것인가?

카베진으로 회복할 것인가!

지저지른 반복되는 위장병!
 시도 때도 없이 괴로운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에 오해 내내 불편한 더부룩함과 답답함, 신트림 등... 위장병은 왜 반복될까요?

문제는 바로 위장막!
 손상된 위장막은 반복되는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장병은 위장막부터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 유래 성분 MMSC의 위장막 회복 효과!
 카베진코와 S정은 양배추 유래 성분 MMSC*가 함유되어 있어, 손상된 위장막을 회복시키고 위장병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킵니다

*MMSC(메틸메티오닌설폰화합물)란?
 양배추 추출물의 황소화합물인 S-메틸메티오닌이라고도 불리며, 위장막 수복 효과와 긴 장수에 대한 개선효과 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 Jpn Pharmacol Ther(약리와 치료) 35(1), 41-49(2007)

지저지른 위장병을 개선시키는 4가지 효과! 새로 나온 카베진코와 S정

- MMSC 성분으로 위장막 회복 효과
- 재산성분 배합으로 위산 자극 완화 효과
- 참숯간조엑스 함유 위 운동 촉진 효과
- 리파제 AP12의 소화 작용 촉진 효과

카베진코와 S정의 2중층 작용

오중과 핵층의 2중층이 순차적으로 분해되어 각 성분이 위장병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복부계 상층의 카베진, 속쓰림 완화 작용 - 카베진, 소화효소의 리파제, 위산분비 촉진 등의 증상 완화 + MMSC의 위장막 회복

위장병을 회복할 땐 카베진코와 S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www.kowakorea.com

• 대표전화 : 02-6930-4800

• 소비자상담실 : 080-851-4800(수신자 부담)

• 광고심의필 1256-0504